2000년도 시멘트 결산서

김 재 열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부 대리)

1. 2000년 국내 경제동향

새 천년의 벽두에선 2000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던 국내경제는 '98년 8월을 저점으로 하여 최근까지 급속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설비투자와 재화·서비스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작년 하반기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11.1%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재화·서비스 수출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7.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전체로는 작년에 비해 1.5% 포인트 감소한 9.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소비지출은 공공부문 소비가 0.4% 증가에 머물고 민간소비도 7.4% 증가에 그치는 등 금년 하반기의 둔화추세가 반영되어 전년의 10.3% 보다 낮은 6.3%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중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크게 상회한 설비투자도 하반기 중 둔화되어 39.0%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이나 3/4분기부터 감소세가 둔화된 건설투자는 전년의 -10.3%에서 금년은 -4.0%에 그칠 것으로 보여 총고정자본형성은 1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11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0.8% 상승에 그쳤던 소비자물가는 금년들어 국제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조정 등 오름세가 확대되어 2.2% 상승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년동안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였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기업부실을 과감히 정리하되 잠재부실도 조기에 현재화하여 대처함으로써 기업부문의 부실규모를 축소하고, 공적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계층간·산업간·지역간 불균형의 해소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산업간의 경기가 양극화되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의 부양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2000년 국내 건설동향

IMF 관리체제가 시작된지도 어언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여 불황의 터널을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냉랭함 그 자체라고 하겠다. '99년도에 들어서면서 타산업의 회복세 진입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은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여 이른바 경기양극화를 실감하고 있다.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조기발주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이 예산상의 제약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건설협회가 전망한 금년도 건설계약액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계약액은 23조 9,100억원에 그쳐 전년대비 2.2%의 감소가 예상된다. 민간부문은 정부의 건설관련 규제완화

조치와 그동안 연기되어 왔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재개와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공업용건축의 증가세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27.4% 증가한 33조 9,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민간과 공공을 합쳐 57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전년보다 13.2% 증가가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IMF 이전인 '97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22.7% 감소라는 부진의 터널 속에 있다고 하겠다.

건설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던 허가면적이 10월 들어서 감소 국면으로 바뀌었다. 금년의 전년대비 건축허가 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1월 89.4%, 2월 67.1%, 3월 108.4%, 4월 110.1%, 5월 -9.3%, 6월 25.3%, 7월 32.6%, 8월 55.0%, 9월의 16.0% 증가 이후 10월은 전년동월대비 7.5%의 감소를 보여 1~10월 누계치로는 전년동기대비 38.8%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이는 IMF 기간인 '99년과 비교한 것일 뿐 '97년 1~10월의 건축허가 면적과 대비할 경우에는 24.4% 감소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축허가 면적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거용과 상업용이 금리안정, 주택가격 상승 및 실물경기의 회복에 기인하여 10월까지 각각 23.1%, 80.1% 늘어났으며 공업용은 설비투자를 미루어 왔던 기업들의 경기회복세에 맞춰 상승세를 나타내며 전년동기대비 72.8%의 증가를 보였으나 문교사회용 및 기타 건축허가면적은 정부의 조기발주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교시설, 관공서 등의 발주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7.0% 증가하는데 그쳤다.(〈표-1〉)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허가실적과 같이 발표하는, 건설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근접한 건설동행지수인 건축착공실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추세는 건축허가면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몇가지 부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용도별에서 상업용의 경우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보다 80.1% 증가하였으나 건축착공면적은 47.8%에 그쳐 착공으로의 실행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별에서는 목조의 건축허가가 24.5% 증가한데 비해 건축착공은 2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월별로 보면 건축허가면적이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데 반하여 건축착공면적은 이보다 2개월 앞선 8월부터 감소로 돌아서 건설경기의 부진을 건축허가 보다 앞서 예고하였다.

〈표-1〉 2000년 건축허가실적

(단위 : 천㎡, %)

구분		건축허가실적 (1~10월)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48,054	24,816	27,661	34,063	123.1
	상업용	22,828	7,678	8,761	15,781	180.1
	공업용	7,759	2,285	5,971	10,317	172.8
	문교사회	5,422	3,402	3,658	4,392	120.1
	기타	5,731	3,369	2,871	3,359	117.0
구조별	철골조	81,964	38,123	43,877	62,982	143.5
	조적조	4,443	1,623	1,977	1,786	90.3
	목조	146	97	106	132	124.5
	기타	3,241	1,707	2,962	3,012	101.7
합계		89,794	41,550	48,922	67,912	138.8

※ 자료 : 건설교통부.

〈표-2〉 2000년 건 축 착 공 실 적

(단위 : 천㎡, %)

구 분		건 축 착 공 실 적 (1~10월)			
		1998년	1999년	2000년	전년대비
용도별	주 거 용	12,398	16,619	20,864	125.5
	상 업 용	6,479	7,804	11,531	147.8
	공 업 용	2,411	4,616	8,443	182.9
	기 타	5,743	5,465	5,598	102.4
구조별	철 골 조	22,820	29,454	42,318	143.7
	조 적 조	1,845	2,092	1,481	70.8
	목 조	114	113	86	76.1
	기 타	2,252	2,845	2,551	89.7
합 계		27,031	34,504	46,436	134.6

※ 자료 : 건설교통부.

아울러 건설동행지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수주동향에 따르면 2000년 10월까지의 국내건설공사 총수주액은 34조 1,5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6% 증가하였으나 '97년 동기와 대비할 경우에는 31.0% 감소하여 건설경기 부진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9조 2,544억원으로 전년대비 8.8% 감소한데 비해 민간부문은 22조 9,650억원으로 전년대비 38.6%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10조 6,440억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에 그쳤으나 건축공사가 23조 3,997억원

〈표-3〉 2000년 건 설 수 주 실 적

(단위 : 억원, %)

구 분		건 설 수 주 실 적 (1~10월)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전년대비
발주자별	공 공	179,861	162,550	101,419	92,544	91.2
	민 간	283,273	106,661	165,744	229,650	138.6
	제 조 업	49,400	11,010	14,210	21,047	148.1
	비제조업	233,873	95,651	151,536	208,603	137.7
	국내외국기관	707	959	1,187	914	77.0
	민 자	27,529	8,219	8,005	18,443	230.4
공사종류별	건 축	291,081	121,457	177,257	233,997	132.0
	주 택	167,540	80,525	137,079	184,361	134.5
	비 주 택	123,541	40,932	40,178	49,636	123.5
	토 목	197,745	156,129	97,636	106,440	109.0
	전 문 공 사	2,544	803	1,462	1,114	76.2
합 계		491,370	278,389	276,355	341,551	123.6

※ 자료 : 통계청.

※ 주 : 건설교통부 장관 면허업체중 기성실적 상위 292개 업체 실적.

으로 전년대비 38.6% 증가하여 예년의 민간·건축 강세, 공공·토목 약세의 구도가 더욱 견고해지는 양상을 보여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주거용 건축공사가 건설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면적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전년 2/4분기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금년 1/4분기중 최고점을 이루고 9월부터는 전년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10월까지 누계로는 전년보다 23.6%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말까지는 전년수준을 약간 상회한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표-3〉)

3. 시멘트 수급동향

가. 내 수

시멘트는 건설의 기초자재로서 건설경기에 따라 시멘트 수요도 증감을 보이며 변화하는 양태를 보인다. '98년부터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한 IMF의 한파로 얼어붙은 건설경기는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시멘트 수요의 경우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 등 건설지표들의 호조세 지속으로 1/4분기부터 전년보다 증가한 실적을 보였으나 이는 '98~'99년의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뿐 11월까지의 실적을 '97년 동기간과 비교할 경우에는 22.7% 감소한 양상을 보여 이를 반증하고 있다.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면 1/4분기 9.8%, 2/4분기 7.5%, 3/4분기 4.5%, 4/4분기 8.2% 증가가 예상되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7.3% 늘어난 48,000천톤이 기대된다. (〈표-4〉)

한편 11월까지의 업체별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3% 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 고려, 한국은 두자릿 수의 증가, 특히 한국은 30%가 넘는

〈표-4〉 2000년 시멘트 수급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수요			공급			재고
	내수	수출	계	생산	수입	계	
1/4 분기	8,055 (109.8)	948	9,003	9,041 (110.5)	35	9,076	1,543
2/4 분기	14,549 (107.5)	1,018	15,567	15,385 (106.2)	141	15,526	1,501
상 반 기	22,604 (108.3)	1,966	24,570	24,426 (107.7)	176	24,602	
3/4 분기	11,360 (104.5)	873	12,233	12,105 (100.0)	143	12,248	1,517
4/4 분기	14,036 (108.2)	1,074	15,110	14,769 (110.4)	174	14,943	1,348
하 반 기	25,396 (106.5)	1,947	27,343	26,874 (105.5)	317	27,191	
합 계	48,000 (107.3)	3,913	51,913	51,300 (106.5)	493	51,793	

※ 주 : 12월은 추정치, 크링카 수출 958천톤 별도, ( )는 전년동기대비.

〈표-5〉 최근 10년간('91년~2000년) 시멘트 내수의 계절지수 및 출하비

구 분	1월	2월	3월	1/4분기	4월	5월	6월	2/4분기	상반기	7월	8월	9월	3/4분기	10월	11월	12월	4/4분기	하반기
계절지수	57.3	59.7	105.6	74.2	115.7	115.8	113.3	114.9	94.6	100.0	98.6	102.7	100.4	118.7	113.8	98.9	110.5	105.4
구성비	4.8	5.0	8.8	18.6	9.6	9.7	9.4	28.7	47.3	8.3	8.2	8.6	25.1	9.9	9.5	8.2	27.6	52.7

호조를 보였다. 이러한 신장원인은 고려와 한국은 모두 슬래그시멘트 위주로 생산, 출하하는 업체로서 지난해 내수 전체에서 슬래그시멘트의 출하구성비가 9.6% 이던 것이 금년 11월까지 10.5%로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공고' 등 고로슬래그시멘트를 공공기관이 의무구매, 사용할 것을 규정하는 국가 정책과 포틀랜드 시멘트 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힘입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 계절별 출하실적

시멘트는 계절과 일기에 따라 소비가 변화되는 건설 주요자재로 통상적인 소비재 상품과는 달리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온의 고저, 또는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이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온과 일기가 건설공사에 적당한 봄과 가을의 성수기와 폭염과 장마의 여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은 이른바 시멘트수요의 비수기가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건설공법의 발달로 점차 성·비수기의 구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 때 1월과 2월은 이에 훨씬 밑도는 60선에 머물러 비수기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으며, 4월~6월로 이어지는 2/4분기와 10월, 11월이 연중 성수기를 이루며 7월, 8월, 12월은 100선에 위치하여 평균정도의 출하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0년의 분기별 출하구성비를 살펴보면 1/4분기 16.8%, 2/4분기 30.3%, 3/4분기 23.7%, 4/4분기 29.2%로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고, 반기별로는 상반기 47.1%, 하반기 52.9%로 각각 22,604천톤, 25,396천톤을 출하하여 하반기가 2,792천톤 더 많았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상하반기 구성비인 47.3%, 52.7% 보다 하반기가 0.2% 늘어난 형태로 1/4분기의 내수가 예년의 18.6%에 훨씬 못미치는 등 부진했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표-5〉)

(2)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시멘트 국내출하를 먼저 수요부문별로 보면 10월까지 민수가 전체 39,062천톤중 38,135천톤으로 97.6%를 차지하였으며 관수는 2.4%의 926천톤에 그쳤다. '99년의 민수 96.1%, 관수 3.9%와 비교하면 민수가 0.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지금까지 민수 비중이 최대의 실적을 보였던 '97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수가 최근 몇 년간 증가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은 관수 실적으로 집계된 영종도 신공항 현장으로의 시멘트 출하가 '98년 462천톤에서 '99년에는 800천톤으로 급증하였다가 금년부터는 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10월까지 211천톤으로(관수 전체의 22.8%)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3% 감소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한편 품종별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벌크 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10월까지 34,682천톤으로

〈표-6〉 2000년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1~10월	전년대비
수요별	민 수	60,321	43,053	42,957	38,136	109.5
	관 수	1,431	1,562	1,764	926	63.2
	민수비중	97.7	96.5	96.1	97.6	
품종별	포 장	8,422	5,576	5,417	4,380	97.5
	벌 크	53,330	39,039	39,304	34,682	109.1
	벌크화율	86.4	87.5	87.9	88.8	
합 계		61,752	44,615	44,721	39,062	107.7

88.8%에 달하여 전년의 87.9% 보다 0.9% 포인트 늘어나 매년 증가하던 벌크시멘트의 비중이 지금까지 최고 수준을 보였다.(〈표-6〉)

이러한 벌크화율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신속, 편리한 잇점을 지닌 레미콘의 사용이 대형·고층 건축물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주택건설에도 일반화된 시멘트 소비양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9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벌크화의 증가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생 산

금년의 크링카와 시멘트 생산은 각각 45,800천톤, 51,300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각각 4.6%, 6.5% 신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크링카의 생산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8,339천톤 2.1%↑, 2/4분기 13,241천톤 1.0%↑, 3/4분기 11,300천톤 0.1%↑, 4/4분기 12,920천톤으로 15.0% 증가할 것으로 보여 4/4분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업계 총 50개 키른의 금년 가동율은 74.0%에 그칠 것으로 보여 '96년 92.5%, '97년 94.7%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99년의 70.8%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연산 61,877천톤의 생산능력은 전년과 변동이 없었던데 비하여 수요는 외환위기로 인한 건설수요가 급감한 '98~'99년 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 머무르고 크링카 수출도 전년동기보다 32.0% 감소하여 연중 동절기 수준의 보수와 조업단축이 금년에도 불가피하였다. 지난해 각 키른의 전체 운휴일수는 6,114일간으로 월평균 510일 이었던데 반해 금년은 11월까지 5,640일간으로 월평균 운휴일수는 513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운휴일자 가운데 77.6%인 4,375일간은 생산조정에 따른 조업단축으로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수요 침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각 생산업체는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전력요금이 싼 야간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금년중 키른의 특기사항으로는 '97년 12월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가 생산을 중단했던 (구)홍성산업 삼척공장을 고려와 한국에서 임대하여 '99년 8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이후 금년에는 별다른 운휴없이 정상 가동하여 11월 현재 1,224천톤의 생산으로 업계 평균 가동율 73.8% 보다 양호한 86.2%를 유지한 것을 들 수 있고 또다른 것은 지난 4월 중순경 강원도 일대의 대형 산불로 인한 전력선 손실로 전력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인접한 동양, 쌍용, 한라의 삼척, 동해, 옥계공장 키른이 2~6일간 가동중단되는 등 생산차질을 야기한 것을 들 수 있겠다.

시멘트 또한 분기별 생산실적을 전년과 비교할 때 1/4분기 10.5%, 2/4분기 6.2%, 3/4분기 0.0%, 4/4분기 10.4% 등 3/4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6%대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11월까지의 시멘트생산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대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가 고른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한국은 전년동기 보다 30%를 상회하는 내수증가에 힘입어 생산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이 금년 중 유일하게 감소를 보인 원인은 크링카를 수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시멘트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제조 방법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 수출입

시멘트는 부피가 크고 중량물인 제품의 특성상 물류비의 비중이 높아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서 수출입은 단기적인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주로 근접국가간에 발생되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하여 '98년부터 급락한 건설경기가 금년까지 부진이 지속되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키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각 업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적극공략하는 한편 기존 시장의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에 주력해 온 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년 수준의 수출

〈표-7〉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미 국	일 본	이집트	스페인	포르투갈	대 만
1999년	1,726	944	697	461	327	282
2000.1～11	1,695	1,092	319	44	82	377

※ 주 : 크링카 포함.

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거 주요시장이었던 동남아 각국이 다국적 거대기업과 손잡고 오히려 수출경쟁국으로 부상(태국, 인도네시아 등)한데 따라 동남아의 필리핀과 전년 좋은 실적을 보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시장은 거의 소멸되었으나 기존 일본, 대만 및 원거리의 미국, 이집트, 가나 등으로의 수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표-7〉)

미국과 일본, 대만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집트 스페인, 포르투갈, 필리핀 등은 큰폭의 감소가 불가피한 반면 중국(81천톤), 온두라스(88천톤), 가나(116천톤) 등은 금년에 새로이 개척한 시장이라 하겠다.

한편 금년의 총수출 실적이 4,871천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의 4,998천톤 보다 2.5%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를 품종별로 살펴보면 크링카가 958천톤으로 전년보다 28.3% 감소하였으나 시멘트 3,913천톤으로 전년대비 6.9% 증가가 예상된다.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시멘트의 비중이 70년이후 '92년까지 근 20여년간 매년 우위를 보이다가 '93년부터 크링카의 비중이 시멘트 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크링카 우위의 수출은 '96년까지 지속되나 '97년부터 다시 시멘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99년부터 전년의 73.2% 보다 7.1% 증가한 80.3%로 시멘트 우위의 수출 구조로 변화되었다. 이는 크링카 주수입국인 동남아시장이 절대물량과잉으로 가격덤핑이 횡행하여 붕괴하면서 주 수출대상국이 미주, 유럽 등 선진국들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 수입국에서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시멘트 완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표-8〉)

크링카 수출을 포함한 사별 수출실적은 동양 1,578천톤(-7.8%), 쌍용 2,687천톤(10.5%), 한일 3천톤(-66.7%), 성신 301천톤(80.2%), 한라 302천톤(-55.5%)으로 쌍용과 성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사가 잉여물량을 연안사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가동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연안사의 내륙시장에 대한 시멘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시멘트 수급에 크게 기여하는 출하형태인 교환수출의 경우 쌍용과 성신이 301천톤을 수출하여 전년의 167천톤에 비해 79.9% 증가하였다. 수출은 포장시멘트 보다는 기계장치에 의한 선적과 하역 및 대량수송이 용이한 벌크시멘트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금년에도 포장시멘트는 13천톤만이 수출되었을 뿐 나머지는 벌크 형태로 수출되었다.

한편, 국내공급 부족시 수급안정을 위해 들여오던 시멘트 수입은 극심한 내수의 침체로 한일·대우 198천톤, 대한 291천톤, 기타 4천톤에 그쳤으며, 크링카 생산시설이 없는 대한에서 '98년말부터 크링카 수입을 시작하여 금년에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97천톤, 65천톤을 수입, 전년의 480천톤 보다는 크

〈표-8〉 연도별·품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p)
크 링 카	1,550	562	1,584	1,337	958
시 멘 트	784	623	1,240	3,661	3,913
합 계	2,334	1,185	2,824	4,998	4,871

※ 주 : (p)는 예상치.

〈표-9〉 연도별·품종별 수입실적

(단위 : 천톤)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p)
크 링 카	93		5	480	162
시 멘 트	3,538	2,989	178	135	493
합 계	3,631	2,989	183	615	655

※ 주 : (p)는 예상치.

게 감소한 162천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라. 재 고

대규모 장치산업인 시멘트산업은 생산능력은 일정한 반면 수요는 계절과 건설경기에 따른 변동폭이 심하여 수요의 수준에 따라 재고의 변동폭이 커서 항상 적정재고를 보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금년의 재고상태를 보면 전년말 시멘트의 이월재고는 1,469천톤으로 금년의 공급이 51,793천톤(수입 493천톤 포함), 수요가 51,913천톤(수출 3,913천톤 포함)으로 예상되어 연말재고는 1,348천톤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급능력을 크게 밑도는 수요로 인해 필요량만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크링카를 합친 전체 재고는 전년보다 적은 3,000천톤 정도를 보유함으로서 재고관리에 애로를 겪는 일은 없었으나 연중 동절기 수준의 조업단축과 함께 생산시설에 대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포장시멘트를 취급하는 소비지의 역두, 하치장 재고를 살펴보면 11월말 기준 중앙 12천톤, 지방 17천톤을 합쳐 29천톤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6.5% 감소하였다.

금년은 1~11월까지 중앙과 지방의 구분 없이 매월 전년의 80% 내외의 재고를 유지하였는데 이렇게 전년보다 감소한 원인은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포장시멘트 역시 비축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재고 및 물류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지로의 시멘트 이송을 줄였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 수 송

올해는 새로운 세기의 변화를 타고 물류·유통환경에 있어서도 e-비즈니스, e-마켓플레이스 등 정보화물결이 거세게 밀려와 기업의 수송수단 선택에 있어서도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거스르지 않는 적절한 변화가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한해였다. 우리경제 전반에 극심한 몸살을 가져왔던 IMF 한파와 그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로 '90년 이후 연평균 5%대 가까운 안정된 성장세에서 '97년의 60,865천톤의 수송량을 정점으로 '98년 한해만 22%가 넘는 급속한 감소를 보였던 시멘트 수송은 그 이후 조금씩 부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금년들어 10월까지의 수송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의 40,861천톤 보다 4.2% 늘어난 42,574천톤을 수송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내년을 비롯한 건설경기의 장기전망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나타나 앞으로도 급격한 수송물량의 증대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의 수송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산공장의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연안사 수출물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과 수송수단 선택에 있어 물류비의 절감을 위한 수송효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운송했다는 것이다. 수송수단별로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선박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내수물량 증감 추이가 반영되는 철도와 공로는 각각 7.6%, 6.5%의 증가를 보여 내수물량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수단별 점유비로 들어가면 지난해와 이렇다할 변화없이 선박(37%)이 타 운송수단을 주도한 가운데 철도(32.5%)와 공로(30.5%)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멘트 수요의 감소가 소비지 유통중계기지의 재고로 이어져 수송수단 선택기준이 소비지 수요처로의 신속한 수송보다는 비용절감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공로수송을 줄이는 대신 대량 일괄수송을 통한 단위당 운송비면에서 저렴한 선박과 철도를 공로보다 선호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시멘트 수요의 장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2000년 들어서도 수송수단 및 유통기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 대비한 이 부분의 설비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